교사(校舍)의 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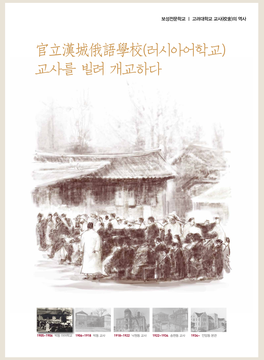
보성전문학교 · 고려대학교

1934년 보성전문학교는 종로의
요람을 떠나 아늑한 광야,
안암동의 새 터전으로 이사한다.
고려대학교가 기품있고 광활한
안암캠퍼스에 터를 잡은 것은 제2의
창학에 해당하는 실로 장쾌한 역사이다.

종로1905년

1 아어학교 시대

충숙공(忠肅公) 이용익(李容翊, 1854~1907)은 고종황제의 각별한 후원 아래 교육구국(敎育救國)이 신념으로 1905년 보성전문학교(普成專門學校) 설립. 초기에는 아어학교(소재: 현 종로 수송공원) 건물을 빌려 사용



종로1906년

2 박동 시대

이용익은 1906년 아어학교에 이웃한 박동(礡洞) 소재 김교헌 소유의 대저택(현 조계사 터)을 매입하여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부속출판사 "보성사"도 설립. 1914년 'ㄷ자' 모양의 서양식건물을 신축, 건물 앞마당 회화나무가 보임

종로1918년

3 낙원동 시대

보성전문은 박동을 떠나 낙원동 서북학회(西北學會) 회관(소재: 현 종로 낙원상가 터)을 임차하여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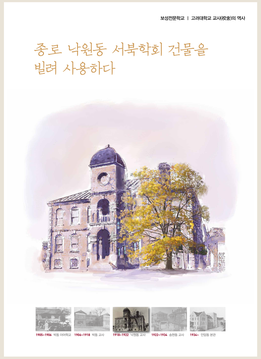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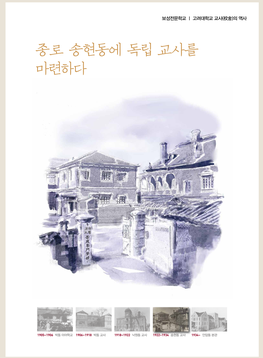


그림 속 회화나무는 1934기부터 자라온 것서울시 지정보호수 제78호). 이 그림은 2019년 3월 현재의 모습으로 이래직 교무건축학과 77기 법학전문대학원에 기증. 2017년 이 나무에서 채취한 종자를 발아시켜 2019년 5월 법학관신관 앞마당에 식재

종로1922년

4 송현동 시대

당시 학교 경영주체인 천도교가 1921년 본부를 송현동(소재: 현 덕성여중)에서 경운동(현재에도 천도교 본부가 있음)으로 이전하면서 1922년 송현동에 보성전문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



The History of School Buildings, from Bosung College to Korea University

안암1934년

5 안암동 시대

인촌(仁村) 김성수(金性洙)가 1932년 보성전문 경영권을 인수한 후 1934년 안암동에 고품격의 건물(현재 본관)을 신축하여 이전. 이로써 종로 요람을 떠나 안암동 새 시대 개막

"푸른 하늘 밑에 우뚝 솟은 백악(白堊)의 석조전(石造殿)은 푸른 솔숲, 하얀 잔디의 광과 서로 비치어 무슨 장속의 궁전만 같았다...인촌이 그 지독한 일정 압제 하에서 왜 그렇게 호사스러운 교사를 지었을까. 그곳에는 우인의 심은 뜻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. 그것은 수기요, 반항이요, 거세에 대한 격려요, 스스로의 분발이었던 것이다."

[유진오, '양호기', 중에서]



보성전문학교 · 고려대학교

교사(校舍)의 역사

“종로에서 안암으로”

“본관은...그 당시로서는 총독부 건물이나 가면 몰라도
그 외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호화판이었다...
대망의 신 교사 입주는 1934년 9월 28일에 행하여졌다.
전 교직원, 학생이 교기를 앞세우고 학교 간판, 각종
우승기, 컵 등을 들고 송현동 교사를 떠나 안암동을 향해 도보로
열 지어 행진하였다. 하늘은 맑게 개고 길 가는 사람들은 걸음을
멈추고 서서 우리의 행렬을 축복해 주었다.”

[유진오, 『양호기』 중에서]

1934년

9월 28일 종로를 떠나 안암동으로 (이사 행렬)





보성전문학교 | 고려대학교 교사(校舍)의 역사

9월 28일 종로를 떠나 안암동으로 (이사행렬)





보성전문학교 | 고려대학교 교사(校舍)의 역사

9월 28일 종로를 떠나 안암동으로 (본관 입성)





보성전문학교 | 고려대학교 교사(校舍)의 역사

9월 28일 종로를 떠나 안암동으로 (완공 직후 본관)



